

고질적 불법행위 횡행 선거전 ‘혼탁’

도내 현수막 훼손·상대후보 인신공격·선거 운동원간 몸싸움 등

공식선거전이 증반으로 치달으면서 일부 후보 측에 의한 상대후보 인신공격, 현수막 훼손 등 고질적인 선거범죄가 횡행하는 등 선거전이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원순창일일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동원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강 후보 측에 따르면 입실지역에 걸린 강 후보의 법정 현수막이 지난 4일 찢긴 채 훼손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강 후보 측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음·면·동마다 1개씩 게시할 수 있는 법정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찢겨져 훼손된 것으로 잠정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익산에서는 총선 후보자에 대한 불륜설을 유포시킨 혐의로 지역 정치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익산갑 후보자인 A후보 불륜설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전직 시의원 B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후보가 B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B씨의 자

택과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후보의 진술과 SNS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완주에서는 유세차량 위치 선점을 위해 선거 운동원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혼란이 발생했다. 앞선 4일 오전 완주진장 선거구에 출마한 더민주당 안호영 후보와 국민의당 임정영 후보 지지자들이 유세차 위치를 두고 몸싸움을 벌여 자칫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앞선 지난달 25일에 후보자 C씨 선거운

동을 위해 유세차량을 설치하고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한 후, 일당 7만원과 증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D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C씨를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공약을 홍보한 혐의로 D단체 회장인 F씨 등 6명이 4일 완주군선관위에 의해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 마쳐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4.13 선거 RUN·RUN·RUN

최형재 후보,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조성 약속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전주시)는 5일 전주서부권인 서신동에 수영장 중심의 체육시설과 혁신도시에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후보는 “서신동과 혁신도시는 약 20년의 시간차이가 있지만 전주시의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돼 전주의 양대 도심으로 성장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며 “서신동은 대형 상업시설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유동인구나 실거주 인구 양면에서 전주의 중심지라고 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나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은 없다. 또한 혁신도시는 거주자가 급격히 밀집한 신생도시지역으로 문화, 체육활동 시설 및 공간이 전무하다”고 말해 두 지역의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는 “서신동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수영장중심의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혁신도시에는 부지 4,000㎡에 다목적체육관 및 문화센터, 동호회공간을 확보하는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최 후보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개발은 도시의 팽창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지역에 사는 주민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4.13총선에서는 각 후보들의 공약이 그저 표를 사기 위한 것인지,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 투표로서 가려줄 것”을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전투표 관련 개입설 강력 경고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제20대 총선 사전투표의 관련 개입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실시 될 사전투표를 앞두고 곳곳에서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개입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이어 “어르신들의 투표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먼 지역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 향응을 제공하며 지지를 종용할 우려가 크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개입설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북도당은 “국민의당은 모 언론이 자치단체장들의 의중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거 개입을 조장하는 듯한 칼럼을 게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성과 부정선거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해당 언론사의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고 비난했다.

/특별취재반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보도 금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 후보의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보도 금지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항에 따른 것이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우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새누리 김무성 오늘 전주 방문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전북 후보자 선거지원을 위해서 6일 전주를 방문한다.

김 선대위원장은 전북출신 비례대표인 신보라 후보와 동행한다.

이들은 오전 8시반부터 전주롯데백화점 앞과 전주안행사거리에서 전주권 통합 유세를 펼친다.

/특별취재반

보육의 질 개선하라

5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보육 관련 총선 공약을 요구했다.

군산 선거구 김윤태 후보 기세 심상치 않아

더민주 도당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 뒤집을수도 있다는 관측

제20대 총선 군산 선거구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내부적으로 김윤태 국회의원의 후보가 일을 내는게 아니라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당 안팎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를 뒤집을수도 있다는 관측도 접착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에 ‘더컷유세’ 지원 요청을 검토하는 등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관측이 나오는 것은 최근 치고 올라오는 김윤태 후보의 여론 형성 등 세걸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역 관측통에 따르면 군산지역 상인연합회가 김 후보의 지지선언을 조율 중이고 전체 상인연합회까지 확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봉균은 새누리당에, 김관영은 국민의당에 등 언제부터 군산지역이 분열됐는지 모르겠다”는 지역민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탈당했던 전직 시의원 10여명이 복당, 김윤태 후보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태 후보가 졸업한 군산중고 총동문회도 김 후보의 진지 로 자리에잡고 있다.

5일 열린 군산중고 총동문회 이취임식에서 김 후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간.

공교롭게도 총선이 일주일 채 남지 않아 김 후보가 어느정도까지 막판 뒤집기에 결집이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특히 군산 외곽지역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게 이번 뒤집기의 관건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한희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은 “중앙당 자체 조사에서 김관영 후보와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든지 뒤바뀔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결집 모습이 보인다. 김윤태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그동안 활동하지 않은 원로들도 참석했다. 30년 전통의 민주당을 우려했고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었 보였다. 김 후보의 막판 세걸집은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유종근 후보, “국제역사테마파크 유치 공약 관련 중국측 투자단 공식 전주 방문”

무소속 유종근 국회의원후보(전주갑)는 “오는 8일 유종근이 공약한 국제역사테마파크 유치와 관련해 중국측 투자단이 전주를 공식 방문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이날 방문하는 대표단에는 왕가봉 청도시 공청단 청년기업협회 부회장과 설계투자 담당인 청도건설의 부사장 등이 포함되며, 한옥마을 방문과 전주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고 소개했다.

유 후보는 “전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자본과 민간 자본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외자유치의 경험과 이를 이뤄낼 네트워크를 가진 유종근이 바로 전주 경제를 살릴 책임자”고 강조했다.

한편 유 후보는 지난 3월18일 중국 청도시 공청단 청년기업협회 대표단과 중국 노나라문화거리 공동개발에 대한 MOU를 맺었다.



/특별취재반

김윤태 후보,국공립 어린이집 전환등 8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군산시)는 5일 군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확대 등을 포함한 8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가 제시한 8대 공약은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정비 확충 ▲노·심혈 관계 의료서비스 시설 확대 ▲소득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월80만원 균등 지급 ▲청년 실업자 청년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금 교육훈련 급여 도입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가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확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신분 보장 및 처우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등이다.

김 후보는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 “군산에서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부족하다”며 “전체 보육 아동 가운데 6.4%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어 보육 아동 대부분은 민간시설 또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후보, “지역 사업 더욱 쟁기겠다”

국민의당 남원시삼실군순창군 기초 3번 이용호 후보는 4월5일 오전 오수장과 관촌장에서 잇따라 유세를 펼친데 이어 오후에도 입실지역을 돌며 입실지역 유세에 집중했다.

이용호 후보는 “그동안 입실은 완주 입실선거구, 무진장·입실의 선거구에서 다시 남원시, 순창군과 함께 지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며 “하지만 입실님의 이름처럼 입실은 순창, 남원과 하나라는 인식이 오래 전부터 자리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입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업을 더 열심히 쟁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후보는 “지역 주민들이 유정호 제2공구 순환도로 개설, 성수산 산림휴양지 개발, 관촌 사산대 휴양관광지화, 그리고 오수이전 공원 개발 입실치즈 산업 육성 등 지역주민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며 입실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국회의 당 조배숙 국회의원 후보(익산 을)는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조 후보는10대 공약의 목표를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 삶의 질이 높은 농촌, 행복하고 건강한 농민으로 설정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가경영 안정대책 수립, 농촌교육 활성화, 농가 소득 안정, 농정활동 지원, 농촌인력육성, 농촌복지향상, FTA 등 수입개방 대책 강화, 농업기반 정비, 농촌체험관광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 10대 분야별 공약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10대 농업농촌농민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정책자금금리를 현행 2~3%에서 1%로 인하”고 “농업재보험의 전면 확대 실시로 모든 농가가 농업재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 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경영위기와 소득감소를 해결하겠다”는 약속했다.

또한 조 후보는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 농촌지역학생들의 교육평등권과 학업향상을 지원하고 지역이동센터 국비 예산 확대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친환경농산물 보호와 학부모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발전불균과 조간불거지역 직불금을 모두 100만 원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활발한 농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의기관인 농어업협회의소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법제화의 내용에는 예산지원 및 품목단체와 농민단체의 활동보장, 자조금 확대 도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별취재반

조배숙 후보, 농업·농촌·농민 위한 10대 공약 제시

안호영 후보, 명쾌한 공약·준비된 국회의원 강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완주·진안·무주·정수 선관위 주관 후보자 토론회가 5일 전주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지역발전 위한 정책공약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임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사람의 소외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완주인민주정수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이번 선거에서 더 강하고 더 혁신적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 2017년 정권교체와 함께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완주무주, 나아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정책발표를 통해 ▲동서횡단철도 조기착공 및 호남선 KTX 혁신역사 신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버스비 무료 및 4분 통합 버스공영제 시행 ▲산악관광 특별법 제정 ▲완주 신단에 탄소산업특화단지 유치 ▲지역별 명문고 육성 등의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또, 마무리발언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과립치한 범죄사실을 정의로 둔갑시키는 구태정치인들로 인해 2016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삶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깨끗한 사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민생을 쟁기는 진짜 일꾼을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당 임정영 후보가 자신의 전과경력이 집중 조명되자, 전과사실여부에 대한 소명 없이 범죄사실 입수여부에 대한 공방만 오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 입수한 임정영 후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수제’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불입과 공개하기로 했다.



/특별취재반